

これを保存してコピペしまくれ  
画像もローカルに保存しといて

## ■ 当時の朝鮮人による人身売買、それを止める日本の警察の新聞記事 ■

東亜日報（1939.03.28）50 人余りの娘が朝鮮人人身売買団に引っかかり、  
北支や満州に娼妓として売られるも、日本の警察が救出する



毎日新報（1936.05.14）農村の婦人を誘引した犯人を検挙  
女性を満州に娼妓として売却しようとしていたところを日本の警察が検挙  
女性を救出する 4 人の女性が魔の手を脱する

대인은 一원 소인 반액인데  
동농지간은 발매한날로 부터 十五이간이라한다

## 農村婦女誘引

# 惡漢을檢舉

네여자가마수를버서났다

## 警察의餘罪追窮

【光州】十一일오후엇던모령녀 원을지불한후 만수국금주방면  
자를다리고 四十되는남자가 (濟洲國鎭州方)에 창기로  
광주부내를도라다니는것을 광 팔기위하야 녀자의본적지인광  
주서원이 이상히보고 열충히 주토다리고와서 부모의승락을  
취조한결과 전기념자는강진군 바드러고수속중인것이판명된결  
강진면주찬훈(康津郡康津面朱 和勳)으로되엇는데 이  
贊勳(三)이라는자로 장흥군 買移送事件)으로되엇는데 이  
장흥면(長興郡長興面)엇던한 외에도이러한수단으로 장흥읍  
주점에고녀(雇女)도잇는녀자 주점에잇는 고녀三명을다리고  
를경성자기음식점으로다리고간 외서 광산군송정리라주려판에  
다고 거짓말을하고 채금三百 두엇을얻아니라 무지한농촌처

녀와 부녀까지誘引한  
는가 의심한동서에서는열충한  
취조를계속하고잇는모양이다

東亞日報 (1939.8.31) 惡徳紹介業者の横暴 誘拐した農村女子の数は 100 人以上全員、  
日本の警察が救出



農村婦女子誘拐

釜山刑事奉天에急行

【嶺山】 만주 여단자문래거진 의 소개업자 四五명에 섰되하여  
출하여 그사태가 무척 놀아진다 순정한 부지자를 감언리인으로 유  
고 조영래지 불출에서 상인이 출하여 만주법원에 배정할수가  
이러은 부지자를 도회지에서 집 四五호로 초과한다고 부설로 사법  
공하는 소위 소개업자가 萬餘이 개에서 열수이조는 하민중 등사  
박문아야 최근로부내에서도 간에 판지지인 萬餘로소개업자  
로 된것이라고 한다.

여 토의중 반석구해정아  
 爲正을 다함정일이 심히  
 시어에하여 이코이부  
 爲正한대로 가신의었다  
 이다.

一、徵求取三九月一日早  
二、徵求補各由西二  
一個小備置 三、徵求取補

毎日新報（1936.07.09）娘を誘引し、売春を強制した行商魔女の罪状 純真な女性を誘引し、中国人に売春を強要 日本の警察が検挙し、被害女性たちを救出

婦女誘引醜業強制한

行商魔女의 罪狀

취조따라속속진상이드러나

關係支那人等檢舉

과보|| 일마전부터 종로서에서  
가정부녀를밧서로 행상녀들의  
유인사건이 발각되어그유인한  
마괴수인을검거조중이던바九  
일에일으켜서는외의에도그들의  
범행이진부들이나게되었다 점  
거되어있는 황금정 (黃金町)  
四점목 三번지 박금희 (朴金  
姬) (三)는 전기 庫소에서  
이발 (理髮) 영업을 하고있는  
지나인 처 (妻) 인대약三년전  
부터 남편의지시에의하여 무  
하검속중인 황해도연백 (黃海  
道延白) 출생의이덕순 (李德順

(\*)과함께 행상을꾸며가지  
고 시골과시내로 행행하며감  
연리설로 어수룩한 가정부녀  
를 뺏아내며 지나인에게 한  
번에一원식을받고재우고 또는  
소개료로 二十원식을바더먹은  
것이 황로가되어 종로서에서

東亞日報 (1935.03.07) 中国上海暗黒街に朝鮮人女性が約 2000 人これら、遠征売春婦のために朝鮮人の威厳が損なわれる しかし、これに対策を打つことはできない なぜなら、経済的な問題で自発的に労働しているから



東亜日報（1933.07.01）少女誘拐団のトップを逮捕  
主に幼い少女たちを誘い出し、売春宿に売り飛ばしていた



# 少女誘引團の首魁

## 은병어멈再昨夜檢舉

유인파 추임으로 전파까지

中人과十五年間同居

### 檢舉漸擴大

소녀참살사건에 관련된 소녀유인단의 검거활동은 종로에서부터 연계를 하고 있다.

二十九일밤에 사건관계자의 피의자二、三명을 검거한 이외에 계속활동하여 사건의범인 이성녀(李姓女)(假名)를 은이하였던 부외 공터리(孔德里)二천三백八十八번지의 황덕수(黃德秀) 이외의 관계중인들을 인지하고 목하 엄중한취조를 계속하는중이라한다. 그리하여 파생적으로 전개되는 소녀유인 파골사건은 더욱 확대되는중이라 한다.

소녀참살사건이 일어나는 二十六일에 이상익도 이 사건에 관계가 있는듯이 그중죄를 감주고 말은 서소문정(西小門町)「은병어멈」이라는 녀자는 二十八일에 이르기 까지 돌아 오지 않아 경찰은 그간곳을 엄람하는데 전기 은병어멈의 남편 서모는 二十七일에 경찰의 취조를 받은후 二十八일 아침부터 또한 집을 나가 오지를 않습다 한다.

소관 종로서는 필사적 노력으로 수사하던중 二十八일저녁때에 드디어 경찰의 손에 잡혀었다. 이녀자가 잡히기전에 그동리사람들의 말을듣는데

여수룩한 조선녀자를 피이여 몇十월에다가 팔고 또한 녀자를 데려다가 매음을시키다가 형무소에가서 징역까지 살고나온전파자라 한다. 그리고 은병어멈의 남편서모(徐某)도 전파자라고 한다.

우변해사건과는 별개인지 모르나 여하간 은병어멈은마굴(魔窟)의 피수임이 사실인듯하며무한람원한바에 의하면 전기 은병어멈의 남편서모(徐某)는 중국인이인 데 이중국인과 十五年간을살아오는데동안 여러소녀를 유인한일로 정역까지한일이잇다한다.

純眞處女言誘引

娼妓의醜業強要

동업하자고 썬여다가매춘시켜

就縛于滿洲人肉商

사는커녕 그날부터 손님을  
 개하여 창기노릇을시킴으로그  
 재아들은출을알았스나 떤은이  
 미어두고말았다 나서는뒤로  
 국에서누구하나 선녀의뵈를로  
 아줄사람은없고 악마의책스죽  
 짚은심함으로할수없시 인육시  
 (人肉市)에동중조(龍中鳥)  
 가되고 말았었다 그후 만주  
 국주재소에서채선녀의 신분을  
 평양서(平壤署)에 조희래(趙  
 結과 부모의 승락이없시 창  
 기가되었음으로 영업을위소하  
 는동시에 본격지도 돌려보내  
 게되었었다 장아를시하여준다  
 고하는가람에 섬을오게되더니창  
 기가되어서 돌아오게되선녀의  
 는하도기가막히어 이익을한모  
 사정을 경찰에호소하게 되었  
 습다 경찰의취조에의하여 박  
 창봉이란자는 선녀의부친의이  
 장을 위조하여 거짓증략서를

卒 曰 엇든 것과 모든 죄상이 알  
 되 었 는 데 이 자 는 이 외 에 도 가  
 혼 수 단 으 로 역 시 대 동 고 무 공 장  
 에 직 공 으 도 잇 든 부 내 서 성 의  
 (西城里) 四 五 번 지 리 준 효 (李  
 懷孝) 의 쌍 리 화 준 (李花順)  
 도 운 假 名 을 칩 으 로 삼 고 호 화  
 후 화 순 의 부 모 도 물 을 계 만  
 주 도 다 리 고 장 든 사 실 이 폭 도 되  
 었 는 바 이 자 는 리 화 순 을 칩 으  
 로 엇 기 전 에 리 춘 자 (李春子)  
 (李春) 라는 녀 자 를 칩 으 로 부 었  
 고 리 화 준 을 알 게 된 것은 리 춘 자 의  
 소 개 도 알 었 다 고 하 는 바 정 찰 에  
 서 는 박 장 봉 이 와 리 춘 자 가 서 로  
 공 모 한 후 전 기 와 가 른 수 단 으 로  
 순 진 한 못 처 녀 들 을 유 인 하 여  
 다 가 창 기 도 팔 어 먹 으 러 는 것  
 이 나 안 인 가 하 야 전 기 무 남 녀 를  
 동 서 에 인 치 한 후 목 하 임 수 위 조  
 승 이 다

東亜日報（1939.08.05）処女貿易の誘引魔 日本人女性を誘引し、  
中国に売り飛ばそうとしているところを日本の警察が検挙



# 『處女貿易』의 誘引魔

## 北行列車에 실린 네 處女救助

### 西署에서 魔女貞淑을 嚴調



三인방 일한시에 경성역을 출발하는 북경(北平)행 급행열차에 나히三十세 가량의 여자가 十七, 八九세되어 보이는 일련대지쳐녀네 사람을 데리고가는 것을 서대문(西大門)경찰서 소방(小方)형사가 조

사한결과 의외로 유괴마(誘拐魔)의 성체가 탈로되어 인치하여업 중이 취조중인데 여죄가 상당한한 혐의양이다.

전기 유괴마의 여자는 부내의 주통(義州通)인 정복출생으로 현재 북지분(北支分)내(北支分陽城內)에서 카페업을 하고있는 임정숙(林貞淑)이(이)데 유괴마의 마술로 끌려가든 처녀들을 일련대지쳐녀네(連城縣) 출생산하정자(山下正子)이(이)와 삼인방(三인방)이(이) 발에 서대문서에 보충되었었다 임정숙은

일즈이 어렸을때부터 일련대지인 집에서 자라난만큼 그어행(言行)이 일련대지인과 조크도 말은정(正)이었을뿐 아니라 소화(五)년경에 부내에있는조일(曹井)신파강습을 졸업한후에 관정(坂井)병원(病院)의호(湖)로(湖)로 병원에 간후후로오래근무한 관계로 자연히일련대지여자들을 포제가만했다그후에 임정숙은 만주에가서 말연(末永)永(永)이라는 일련대지인과 등거하여 일련대지인(末永定子)라고 불리며 임정숙이라고는

불르지 않게되었다 한다. 그후선기분양성내에서 카페업을 하게되자 자기정부와 공모하고 일련대지여자들을 유인하여 팔아먹을 것을 계획하고 약한일련대지인(東京)대판(大阪)선대(仙臺)등지에가서 명을오는 처녀들을 감언(甘言)으로 꼬여복지로 데려다가 팔아넘기라고 경성에서 하로발자고 떠나라는것인데 전기 유괴마한 처녀들가운데는 상당한 가정에 태어난 여자도 잇다하며 당국에서는 여죄를 엄중히 추궁중이다. (사건(事件)의유괴마(誘拐魔)임정숙)

毎日新報 (1939 03 28) 農村処女を誘引し、100 人余りを売り飛ばす朝鮮人拉致団  
これを日本の警察が検挙し、女性たちを救出



